

도서관탐방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의 불씨를 지핀

울산남부도서관을 다녀와서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영아독서운동인 북스타트(Bookstart)가 2003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몇몇 지자체들(서울 중랑구, 서울 중구,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이 울산남부도서관(관장 고경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다. 도서관은 이를 계기로 지난 1월 26일 도서관 1층에 40평 규모의 영·유아자료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북스타트 운동의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관련 예산이 10배 가량 증액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담당자는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려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문익에 답하느라 요즘 정신이 없다고 한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현상 유지도 빠듯한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개척해나가는 도서관 운동가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 편집자 주

교육열 높은 35만 남구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교양·학습공간



(대지 3259㎡(966평), 건물 4479㎡(1,355평), 1,387석,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좌석수 1,387석, 직원 34명, 장서 155,536권, 1일 평균 이용자 수 3,713명)

1989년 개관한 울산남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은 울산시 남구 옥동 주택가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35만 인구를 가진 남구는 비교적 젊은 인구층이 상주하여 교육열이 타지역에 비해 높으며 도서관 주변에는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도서관은 늘 이용자들로 붐빈다.

도서관의 연혁을 잠깐 살펴보니 매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특히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지정' (1998),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 지정' (1998),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지역중심평생학습관 지정' (1999), '교육부로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200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2002)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맡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은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각 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 및 소식지를 발간하며 매년 관계자 연수회를 마련하고 전국 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한다. 또한 평생학습관을 운영, 2004년 만 해도 23개의 평생교육강좌에 7,992명, 2회 초청강연회에 375명이 참가하였고 울산지역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연합작품전에도 80점을 출품하였다. 특히 유능한 퇴직자들을 지역사회 평생



〈2005년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 모임.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5세 이상의 퇴직자(교원, 공무원, 민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지역학교 및 지역평생교육기관에 자원봉사자로 배치, 교육자원으로 활용된다. 도서관은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 울산 지역 봉사단 선발과 교육, 선진지 연수, 학습동아리 활동 관리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시작하며 도서관 활성화의 새 모델 개척

하지만 도서관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하던 중 ‘북스타트’라는 독서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북스타트 한국위원회(위원장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와 지역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도입되어 그동안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도서관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남구가 울산

시 관내 5개 구·군 가운데 신혼가구 및 영유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영유아의 도서관 이용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북스타트’ 운동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 운동은 어릴적부터의 책읽기를 통해서 한 인간을 책을 읽는 아이로, 도서관을 친숙하게 찾는 청소년,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직원들이 이 운동을 우리 도서관에 시작해보자고 해서 제가 반신반의하며 이책의 구청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구청 예산 담당 직원이 놀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도서관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제 막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을 정지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구청의 지원을 받아 바로 우리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고경희 관장(사진)은 책을 통해 지역주민과 좀더 친숙한 도서관,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고경희 관장〉

지자체장의 지원이라는 ‘북스타트’ 운동 추진의 최대 과제가 해결되자 도서관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영유아자료실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어린이실과 함께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어주기가 힘들었는데, ‘북스타트’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40여평의 별도 영유아자료실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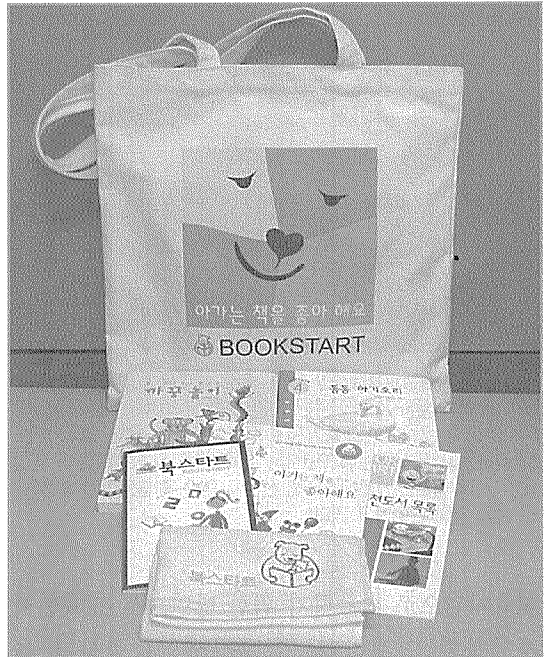
〈도서관 1층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40여평 규모로 마련된 영유아자료실. 7천여권의 장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창문에는 '북스타트' 홍보 펼침막이 걸려 있고, 벽과 천정은 도서관 직원들이 손수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졌다.〉

위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북스타트한국위원회 사무실에 문의하라 이용 중단 없이 자료실 새로 만들라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는 탓에 우선 둘로 나누어졌던 사무실을 하나로 합쳐 영유아자료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를 하고 어린이실에 있던 영유아 자료를 옮기고, 실내 인테리어도 모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붙이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자료도 늘리고 공간도 좀더 쾌적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담당사서 이미란 팀장의 말처럼, 관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공을 들인 덕분에 지난 1월 26일 남구청장 및 지역주민을 초청한 영유아실 개소식은 대성공이었다.

200명 초청을 목표로 전 직원이 나서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에 '북스타트' 운동을 소개하는 책자를 비치하고 영유아자료실 개소식을 알린 결과 목표의 2배가 넘는 400여명이 도서관을 찾았고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다. 덕분에 구청장 등 지역 유지들과 언론의 관심도 높아



〈'북스타트' 홍보를 위한 기념가방과 내용물. 가방, 손수건, 부모용 가이드북은 북스타트한국위원회에서 지원받았으며 도서 2종(1만~1만2천원)과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는 도서관에서 준비했다.〉

져 도서관 식구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피로를 한순간에 잊을 수 있었다.

이번 도서관의 소식이 자극이 되어서인지 '북스타트'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는 주변 공공도서관들로부터 부러운 심정의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스타트한국위원회 측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여개 공공도서관에서 올해 안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니 울산남부도서관이 도서관의 새로운 독서 운동에 물꼬를 틔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속적인 독서운동 추진과 노후된 공간 리모델링 등 할 일이 많아 기본 도서관 식구들

남구에서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3천6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동화구연 시간. 새롭게 단장된 영유아자료실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아기자기한 공간에 감탄했으며 그들의 싱그런 웃음소리로 방안은 더 밝게 빛났다〉



〈울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나 아직 전용 공간이 없어 아쉽다고 한다. 전시실, 시청각실, 자료실 출입구 등 노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여명 정도. 작년 처음 시작은 예산 2백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만 해도 10배인 2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전체 신생아의 50% 정도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도서관은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지속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급히 마련된 영유아자료실의 비품과 장서확충 등 예산 확보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자료실의 일부에 마련된 장애우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일, 부족한 법정장서수를 확충하는 일, 노후된 시청각실을 현대화하는 일 등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하는데, 관장

이하 도서관 식구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윗 사람은 직원들이 열심이라 하고 직원들은 윗 사람 덕분이라고 서로 칭찬하며 앞으로는 사서도 세일즈맨이 되어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고객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도서관 식구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다와 산이 함께 하는 자연의 축복일까 아니면 맛난 울산배와 연양 불고기 덕분일까. 어쩌면 꾸준히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도서관 '독서치료프로그램'의 효과일지도 모르겠다. (글·사진: 도서관문화편집팀)

